

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 등 “통합 추진 적극 노력”

“미래를 위한 선택... 전북 성장 견인하는 동력”

완주와 전주의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모두 힘을 모아 19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공동대표 나유인, 마완식), (사)완주·전주 상생통합협회(이사장 이동진),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실무공동대표 김병성) 소속 임원 및 회원 13명이 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힘을 보탤다.

유희대 완주군수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 세종특별자치도 소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반대 뜻을 전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발끈한 것이다.

유 군수는 일부 단체에 의한 주민 서명 통합 건의가 군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잘못되었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에 시민단체가 단합했다. 유 군수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 통합에 완주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주민 투표 없이 통합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여론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요청했다는 뉴스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나유인 대표가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행정 통합 주민투표는 완주군민의 정당하고 절실한 목소리이며, 완주군민들은 이제 전주의 변화에서 전주의 대등한 도시 위상을 원하며, 통합시로서 상권이 음면으로 확산돼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골고루 나눠 갖길 희망하고,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주·전주의 통합은 1985년 일본 제국주의의 분열과 이간책에 의해 나누어졌는데, 이제 역사를 울



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 등 완주와 전주의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행정 통합 주민투표, 완주군민들의 정당한 목소리” 예산·법률지원, 통합시 예산 완주군 우선 배정 등 전북자치도·정치권·정부 등에 요구사항 밝혀

바르게 복원하자는 군민의 뜻과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군민들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완주·전주 통합은 지방소멸이 가속화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함께 잘 살아 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이해하기 바라며, ‘정부 측의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호남이 밀리고, 광역시 중심의 국토종합계획으로 인해 이 고성의 국외되고 있는 바, 완주·전주 통합이 통합시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은 자명한 사

실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앞으로 완주와 전주의 통합 주민 투표의 성공을 기원하며 정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 힘, 조국 혁신당 등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정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는 현 정부 출범 뒤로 첫 행정 통합 주민투표이므로 축제 분위기 속에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 예산 지원, 법률지원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투표 참여를 막기 위한 갈등과 불화의 소지도 있으니 정당한 권리행사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공력 지원도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이니만큼 통합에 따른 예산 특례 지원, 지방세 증세 동결 등 완주군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도지사의 공개 약속을 요청했다.

또한, 통합시 예산의 완주군 우선 배정, 통합정사의 완주군 내 신설 공식 천명, 완주군민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상생 사업으로 전면 전환, 완주군 공무원과 전주시 공무원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장의 공개적인 약속도 공식 요청했다.
완주군 일부 인사들의 위법 의혹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선출직 공직자 해당행위 조사결과 발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행위와 전반기 내내 정읍 시내에 들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 의결을 위해 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24년 7월 8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 사실관계 문답 및 관련기관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의결했다.

제1안 안건인 제2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행위에 대해 당론위반 투표를 스스로 인정한 의원은 없었으며, 임종책임을 다한 의원이 없었으나, 비공식적 탐문을 통해 당론과 달리 투표한 의혹이 있는 의원은 4회 위반 2인(당당자 포함 시 3인), 1회 위반 4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명단발표 및 징계요청은 보류하되, 4회 위반자 2인에 대해서는 지역위 차원에서 특별관리하면서 다른 징계 혐의가 발생할 경우 함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2안 안건인 전반기 2년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K 시의원은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보류된 경우가 처리될 예정이며, P 시의원의 경우 성희롱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H 시의원의 보조금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죄 등 경합범죄에 대해 추가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L 시의원의 불법복도(성토)에 따른 국토계획법 위반을 비롯해 무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했으며, 이관계급 등의 금지위반, 고소·고발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남원시, 건축재정 예고

정부 교부세 감소...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재정 누수요인 차단... 미래 준비 등에 투자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 남원시 보통교부세가 2022년 대비 1,537억원 대폭 감소했다.

특히 남원시 세입의 4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2022년 5,469억원, 2025년 3,98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다.

시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과 복지 등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등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 재정 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국·도비 유사·중복사업, 각종 선심성 예산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미래준비 투자,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재해위험 시설 긴급보수·보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민선 8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 세수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호산콘도 및 하이츠 콘도 공매 등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기업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민선 8기 들어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교부세가 대폭 감소됐다”며 “어려운 재정을 8만 시민과 공직자

가 함께 극복해 더 나은 남원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적극적인 설명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소통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만금청,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 심사 실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2024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0.2조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민들의 직접 심사를 통한 우수사례가 기대된다.

19일부터 30일까지 ‘소통 24’의 국민심사 창구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온라인 국민투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의 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완주군의회서 세미나 개최

완주군의회, 전북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지역혁신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정책세미나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지역소멸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지역소멸극복을 위한 메가시티 구성 및 행정통합 등 다양한 방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완주군의 역할 및 완주군에게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완주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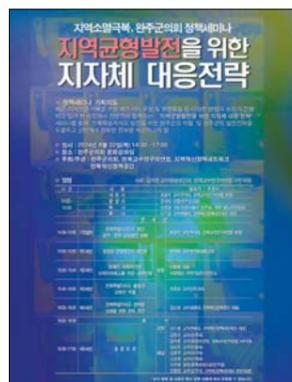
이날 정책세미나는 최광수 교수(우석대, 전북교수연구자연합 회장)의 개회사,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이기원 교수(한림대, 지역혁신정책네트워크 대표)의 축사로 시작한다.

도내 공공의료 살리기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전북자치도의회 농복합위-공공성강화 네트워크,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복합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상임대표 홍수정)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의료 살리기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공공의료정책 전문가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오경재 단장의 진행으로 인하대학교 예방관리과 임준교수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박상영 집행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또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남원 1) 의원,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이영훈 교수, 군산의료원 지부 김해경 지부장, 전북특별자치도

법인 지속가능도시연구소)가 ‘정해진 미래위기와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제3세션에서는 천호성 교수(전주교대)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발과 교육의 역할’을 발표하고, 제4세션에서는 김선광 교수(원광대, 전북혁신정책공간 공동상임대표)가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상생발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정책세미나 제5세션 종합토론에서는 이기원 교수(한림대, 지역혁신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김정수 교수(전주대), 김석준 교수(원광보건대, 전국교수연구자연합 사무국장), 김상우 교수(안동대), 김준우 교수(대구대), 소순창 교수(건국대), 이두영 원장(충북경제사회연구원), 진종현 교수(공주대, 지역혁신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가 참석해 지역소멸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석준 교수(원광보건대, 전국교수연구자연합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완주=염태복 기자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이 전북지역 지방의료원들의 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승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정갈등 상황 속에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많은 의료계 관계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 의료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중심 의료기관으로 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길 기대하며,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박정규·임종명 자치도의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격려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임실)과 임종명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은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과 양궁팀 훈련장을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규 위원장은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임종명 부위원장은 “선수들이 훈련 땀과 노력이 우수한 결실을 맺어, 전북자치도 선수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양궁(여), 체조(남), 레슬링(남), 빙상(여), 컬링(여) 등 5개 팀이 있으며, 다가를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하게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